

❖ 아모스 9 장, ‘5 번째 환상과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들어가기

본 장은 아모스서의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 주신 마지막 환상과 함께 이스라엘의 멸망이 최종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멸망 중에도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을 남기실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장래에 다윗의 장막을 친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본 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3 가지, 곧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과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과 멸망 속에서도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 주신 5 번 환상 (1-4 절)

- 아모스 선지자가 본 5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나? (1 절) ‘_____ 이 붕괴되는 환상’
- 1 절 다시 주목!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 우선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란 말씀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제단’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어떤 특정한 제단을 가리키고 있음! 곧 ‘그 제단’이라 해석해야 함!!
 - > 그럼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신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을 가리킬까?
 - > 1 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벰엘의 제단’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을 가리킨 말로 해석!!
 - a. ‘그 제단’이란 말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제단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음!
Why?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인정하신 제단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뿐!!
 - b. 11 절에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
곧 본 장은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모두 예언한 말씀으로 보아야 함!
=>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 1 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염두해 둔 것이지만, 그가 전한 예언은 전체 이스라엘을 늘 포함하고 있음!!
 -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곧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서 무엇이랴 말씀하셨나?
 - ①.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명하심!
 - > 곧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들을 쳐서, 기둥들이 부서져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상하고 깔려 죽도록 만들라는 것!
 - ②. 뿐만 아니라, 이때 살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칼로 죽이실 것이며, 한 사람도 살아 도망하거나 피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심!!

- ③.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심! (2-4 절)
- a. ‘스울’=(땅속) 깊은 곳이나, 하늘 꼭대기, 갈멜산 꼭대기로 도망가고, 숨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것! (2-3 절)
 - b. 바다 밑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뱀에 물리도록 만드실 것! (3 절)
 - 참고로 여기서 ‘뱀’이라 번역된 말의 히브리 원어는 ‘나카쉬’라는 말로 ‘바다 괴물’로 번역해야 함! (아마도 큰 고래나 상어를 뜻하는 말! = 요나를 삼킨 물고기)
 - c. 원수에게 잡혀 다른 나라로 끌려갈지라도, 거기서 칼에 죽임 당하게 하실 것! (4 절)
 - d.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것’ (4 절)
- ✓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시고, 멸망 당하도록 하실 것이란 사실을 강하게 나타내신 말씀!!
- ✓ 여기서 우리는 참고로 본문 속에 나타난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곧 ‘악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됨!!

■ 그럼 이와 같은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 ①.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멸망의 일차적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신 것!!
 - ②. 이것을 우리가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분명 교회부터 심판하실 것이란 사실과,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결국 민족과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
- ✓ 따라서 바른 믿음의 성도는 죄에 대하여 철저히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제사장적 삶의 자세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할 것!!

2.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5-6 절)

-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라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능하신 이야기함!!
 - ①.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를 애통하게 하시는’ 분! + ‘그 온 땅이 강의 넘침 같이 솟아 오르며, 애굽 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분! (5 절)
- => 곧 홍수와 지진으로 인간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②.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신’ 분! +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 곧 하늘과 궁창과 땅을 나누어 창조하셨고, 바닷물로 비구름을 만들어 온 땅에 쏟으시며,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③.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 ‘여호와’=‘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 (애굽에 내리신 10 가지 재앙을 참고해 생각할 것!)

=> 곧 그는 인간이 만들어 낸 우상이 아니요, 온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

✓ 여기서 우리는 먼저 본문 속에 나타난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곧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됨!

✓ 그럼 왜 아모스 선지자는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 할까?

=> 그것은 바로 지금껏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재앙과 심판을 하나님은 충분히 행하시고도 남으실 전능하신 분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지금이라도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촉구한 것!

=> 참고로 오늘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

=>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줄 알아야 할 것!!

3. 멸망 중에도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7-10 절)

■ 7 절 주목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스 족속’ 같다고 책망하셨음!

● 우선 ‘구스 족속’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가리킴!

●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스 족속’ 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a.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검은 피부가 결코 희게 되지 않는 것처럼,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탄식하며 하신 말씀!

b. 구스 족속은 원래 노아의 아들인 ‘함’이 나은 ‘구스’의 후손들인데,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나일 강 상류에 정착하여 살았음! 곧 혈통적으로는 저들도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은혜 밖에 있는 민족이 된 것임!!

=>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보실 때, 저들도 이런 구스 족속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살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란 것!

■ 이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만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도, 아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셨다고 말씀하셨음!

● 이것은 곧 자신들만 하나님께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던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신 것!

=> 참고로 여기서 우리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됨!!

=> 또한 우리가 구원함의 은혜를 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잘남이나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고자 힘써야 할 것!

-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은 항상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신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흘으실 것이라 선포하였음! (8 절)
 -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특별히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셨음!
 - => 곧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심으로써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지속되게 하였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심판이 임할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음! (9-10 절)
 - 9 절: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사정없이 체질하여 돌은 떨어지고 알곡만 남기듯,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 => 이때 특별히 ‘알갱이는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음!!
 - => 이것은 곧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경건한 자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며 지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
 - 10 절: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 믿는 죄인들은 반드시 멸망 당하게 될 것!
 - => 특별히 여기서 ‘죄인’이란 말은 과거에 범죄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 자신의 죄악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속이는 자들을 가리킨 말!!
 - => 곧 거짓된 말과 위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속이며 불순종하고 있는 당시 신앙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신 것!!

4.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11-15 절)

-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먼 훗날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가 올 것을 예언해 주셨음 (11-12 절)
 - ①. ‘그 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과 허물어진 것들을 옛날처럼 다시 세우실 것! (11 절)
 - a. 여기서 먼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란 표현을 주목!!
 - b. 곧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너지는 세상 장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
 - c.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장막을 새로운 장막으로 친히 세우실 것이란 사실!
 - => 이것은 곧 1 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이스라엘이 포로된 자들, 남아 있는 자들이 돌아와 다시금 세우고 재건 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 볼 수 있음!
 - =>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통해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로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

②. 그래서 하나님은 12 절에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선언하심! (12 절)

a. 특별히 '에돔의 남은 자'를 주목!

->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요, 이방 민족이었음!

-> 그런데 그날이 되면,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아 있는 자들이 있고, 저들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그 나라의 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

b. 뿐만 아니라 그 날이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곧 하나님의 이름 안에 속한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다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

➤ 따라서 이것은 곧 일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는 자들과 함께 무너진 다윗 성을 다시 재건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라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얻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

■ 하나님은 새로운 다윗 왕국, 곧 예수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행복을 다음과 같이 예언해 주셨음! (13-15 절)

①. 13 절: 무르익은 곡식이 산과 들에 풍성할 것!

=>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축복이 항상 충만할 것을 보여 주신 것!

②. 14 절: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황폐한 성읍과 땅을 새로 건축하고 가꾸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될 것!

=> 이 또한 예수 안에서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무너진 삶을 새롭게 가꾸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 것을 보여 주신 것!

③. 15 절: 이제 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결코 뽑히지 않을 것!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곧 가나안 땅, 천국에서 결코 뽑히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

➤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 곧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그 어떤 시련과 박해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총만하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시대가 올 것을 가르쳐 주신 것!!

❖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든 생각과 결단한 내용들이 있다면?

❖ 중보기도 제목나눔